

2 0 1 3
대통령의
성공조건



이숙종 · 강원택 공편

Keys to Successful Presidency in South Korea

Edited by Sook-Jong Lee and Won-Taek Kang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의 대표적 프로젝트의 하나는 “대통령의 성공 조건” 시리즈이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통령 개인들의 리더십이나 자전적 또는 역사적인 것들이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통령학이란 분야가 개척되기도 하였지만 사회과학적 연구는 일천하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대단한 이론적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실천적인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실패해 왔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성공을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적이어서, 어느 분야에서는 성공적이고 어느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통령을 한마디로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의 대통령들은 대개 불행했고,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범국민적 지지나 존경을 받은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은 시해되거나 감옥에 갔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민 대통령들의 경우, 자식이나 친지 및 측근의 부패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퇴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써 비극적 역사를 남겼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심판하려 든다. 대한민국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성공했다고 기억되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작업의 결과로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란 책이 출판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를 준비하던 인수위가 이 책을 읽고 청와대 대통령실 직제개편에 반영했다. 연구팀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결실이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의 해에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인수위의 성공 조건을 연구,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 조건》이란 책을 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2012년 대선의 해를 맞았다. 마땅히 이 중요한 성공 조건 시리즈를 착수해야 했다. 7명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내부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11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우리는 먼저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모셔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생각들을 경청했다. 2012년 2월 22일 윤여준 전정무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3월 22일 김병준 전정책실장, 4월 5일 이동관 전홍보수석비서관, 5월 11일 이원중 전정무수석비서관, 6월 21일 김종인 전경제수석비서관, 7월 12일 박형준 전정무수석비서관, 7월 27일 성경룡 전정책실장, 8월 9일 한광옥 전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여덟 분이 연구팀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연구진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모두 망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통해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골라 나누어 집필하였다. 맨 앞 장은 각 장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보기 쉽도록 네 개의 행위자와 영역으로 나누어 모아 정리하였다.

2013년 2월 하순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정부가 출범한다. 서문을 쓰다가 일주일 후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 서문쓰기를 미루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어느 특정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직을 맡을 임명의 대통령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책은 1월에야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서문을 쓰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거의 동시에 들어선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외정책에 있어 많은 과제들이 부상할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도입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막대한 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을 대통령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대통령직의 파트너가 되는 기관들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지도자들이 협력하여야 성공으로 향한 걸음을 옮길 수 있다. 국민들도 대통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한다. 팔로십이 없이는 리더십도 자라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은 좀 더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여 2018년 외롭지 않은 모습으로 퇴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준 연구진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다.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을 모시는 데 연결자로 큰 역할을 해 더욱 고맙다. 프로젝트 내내 동아시아연구원의 이곤수 박사가 간사로서 연락과 섭외, 내용 정리, 집필 참여 등 수고가 많았다. 늘 그렇듯 성의껏 출판 작업을 맡아준 신영환 연구원에게도 감사하다. 2017년 대선의 해에도 연구원의 네 번째 작업이 계속 될 것이다. 그 때 5년 사이의 연구에서 대통령직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2012년 12월 12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이숙중